

아름다운 화장실, 모두 힘을 모아야...

사무국장 강 석 남

협의회의 활동 1주년 기념사업으로 전국의 화장실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월드컵 개최 10개도시의 화장실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커뮤니케이션즈와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최초의 전국적인 화장실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조사자료가 차후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실태조사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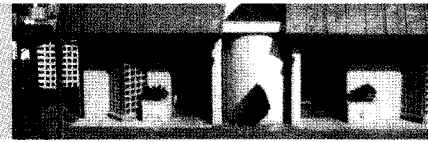
본 조사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화장실), 다중이용화장실(민간 부문이 관리하는 화장실)로 나누어 지역별로 이용객의 수가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각 도시의 인터넷홈페이지 와 전국도로 및 생활지도를 참고로 공중화장실 679개소 다중이용화장실 321개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조사자에게 배포함으로써 조사자가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우리나라 화장실의 규모와 구조, 화장실의 관리체계, 화장실의 시설, 이용객 만족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었다. 특히 화장실의 시설은 기본적인 시설(변기, 세면대 등)과 함께 문화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여기서는 그 개괄을 짚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차후 자료집 발간으로 보다 상세한 조사내용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화장실의 규모 및 구조

우리나라 화장실의 평균면적은 11.5평으로 나타났다. 평균대변기 개수는 6.4개로 나타나 1.8평당 1개의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현재 화장실내에서 대변기 부스의 면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5 조에 짧은 변이 85cm 이상 긴변이 115cm 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 130c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18평, 광주가 14.3평, 대구가 14평, 부산이 13.7평으로 평균이상으로 넓었으며, 장소로는 휴게소(주로 국도변 휴게소)가 그 특성상 단연 최고인 33.7평이었고 공항/철도/항만이 23평, 지하철역이 21평으로 넓게 나타났다.

화장실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가 88.4%로 일반적인 형태를 취했으며 일부 공원과 관광지에서는 기와를 올려 전통과 어울리는 건물 양식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의 화장실 중 5개소에 1개(18.1%), 관광지의 화장실 중 4개소에 1개(25%)가 전통한옥형으로 지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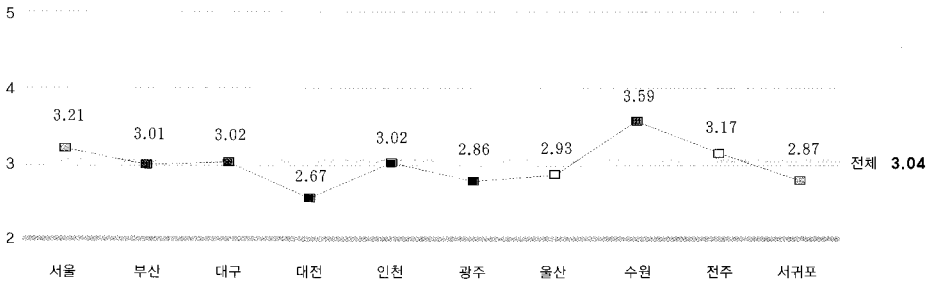
또한 화장실의 절반(44.7%)이 개·보수한지 2년이 채 안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의 심각한 화장실 문제에 비추어 의외의 결과였다. 한편 서울과 전주지역에서 개·보수한지 10년이 넘었다는 화장실이 24%, 18%로 높게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실에 대한 총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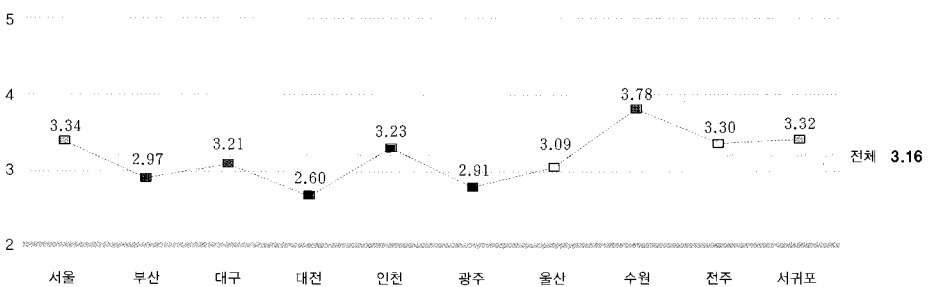
구체적인 시설과 청결도에서 평가를 보면 매우좋다 10.9%, 좋다 41.4%, 나쁘다 39.8%, 매우 나쁘다 7.8%로 좋다는 평가와 나쁘다는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100점만점으로 환산할 때 60.8점을 받아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화장실 이용객 4,7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에서도 만족 38.2%, 불만이 23.5%, 그저그렇다 38.3%로 나타나 전체평점이 63.2점으로 만족도는 시설과 청결정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서울, 전주의 화장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전, 광주, 서귀포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1】 지역별 전체 평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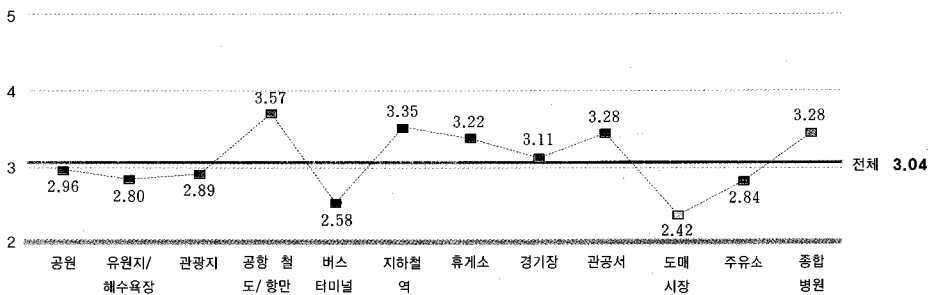


【그림2】 지역별 이용자 만족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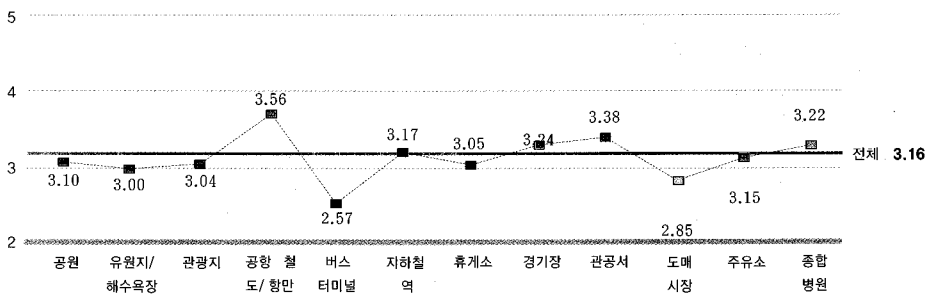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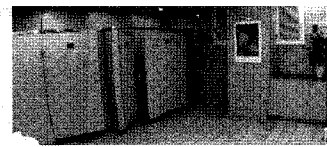
장소별로 보면 공항/철도/항만, 지하철역, 관공서의 화장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도매시장, 버스 터미널이 아주 낮은 점수로 이용자의 만족도면에서도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일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 도심지를 끼고 있는 국도변의 휴게소에 대한 평가는 보통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내 외국인의 발길이 자주 닿는 관광지, 유원지/해수욕장, 공원의 화장실이 평균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한국의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림3】 장소별 화장실 평점 (단위:%)



【그림4】 장소별 이용자 만족도 (단위:%)





1. 화장실의 관리에 대한 평가

1) 관리체계 및 안내표시

관리 및 안내표시 부문의 상태에 대해 점검해 본 결과 관리인을 지정한 비율이 전체의 68.2%로 만족도와 비슷한 수치로 드러났으나, 관리카드 및 점검일지의 비치는 각각 15.1%, 14.5%에 머물러 관리체계가 아주 미흡하고 관리자가 임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전지역은 관리인이 지정된 곳이 81%로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 및 만족도에서는 최하의 평가를 받은 것은 관리카드 및 점검일지 비치비율이 3%, 5%에 불과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관리인의 지정과 함께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진을 부착한 '청결관리인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은 이번 조사대상이 된 화장실이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부분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으리라 추측되지만 68.2%로 나타난 것은 조사자가 관리인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누가 보아도 공중 화장실의 관리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게시해야 할 것이다.

안내표시 시설을 보면 화장실 입구 이외에 안내표지판을 세워둔 경우는 39%에 불과하였고, 사전 거리 안내표시는 12.5%에 머물러 이용객이 화장실을 찾기가 힘들게 되어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관리 및 안내표시판시설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안내표시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2) 화장실 관리상태

화장실의 청결을 좌우하는 청소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3.8점을 받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좋다 7.7%, 좋다 33.7%로 긍정적인 평가가 41.4%이고, 아주나쁘다 4.4%, 나쁘다 21.8%로 부정적인 평가가 26.2%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2.4%가 그저그렇다는 수준이다. 58.6%가 보통 이하로 분류되어 관리인지정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또한 화장실의 특성상 선행 사용자 한 사람의 부주의가 전체의 청결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용자의 공공시설물 사용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겠다.

청소상태를 지역별로 긍정적인 평가만(좋다 및 매우좋다)보면 수원 66%, 전주 54%, 대구 51%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고, 대전, 광주, 서귀포가 각각 21%, 30%, 31%로 조사되어 청결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인천	수원	전주	서귀포
매우 나쁘다	4.4	2	3	5	9	6	5	5	2	3	4
나쁘다	21.8	20	29	22	22	25	25	25	15	18	17
그저그렇다	32.4	36	31	22	48	30	40	27	17	25	48
좋다	33.7	34	28	43	20	34	25	36	46	40	31
매우좋다	7.7	8	9	8	1	5	5	7	20	14	0
평 점	63.8	65.2	62.2	65.4	56.4	61.4	60.0	63.0	73.4	68.8	61.2

[표] 지역별 화장실 청소상태 (단위:%)



청소상태를 장소별로 보면 관공서 54.5%, 공항/철도/항만 53.3%, 종합병원 50.6%, 국도변 휴게소 50.0%로 절반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버스터미널, 도매시장, 유원지/해수욕장이 각각 20%, 23.1%, 29.1%로 긍정적인 평가가 지극히 낮게 조사되었다.

대변기 훼손 및 청결상태를 살펴보면 고장난 대변기 및 소변기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3.4%, 3.5%에 불과해 훼손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편이지만 도매시장 및 운동경기장, 관광지의 대변기 파손비율이 평균이상으로 조사되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변기의 청결정도는 좋다 및 아주 좋다는 비율이 43.1%에 불과해 절반이상의 공중화장실 대변기의 청결정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화장실의 시설에 대한 평가

1) 화장실의 남녀구분

화장실이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는 86.7%로 조사되었고 나머지는 같은 공간 내에 변기만 남녀 별도로 설치된 곳이 6.1%, 변기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화장실이 7.2%로 조사되었다. 남녀 공간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은 울산, 서귀포가 각각 23%, 22%로 아주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녀 공간 구분이 되지 않은 곳은 관공서, 공원, 관광지 순으로 많이 있었다.

2) 대변기 비율

남자와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의 비율은 1 : 1.27로 조사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조 1항의 규정 3 : 8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 4 에 규정된 1 : 2의 비율에도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변기의 종류를 보면 전체적으로 좌변기와 와변기의 비율이 47 : 53으로 와변기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철도/항만이 70.2%, 종합병원이 63.9%로 좌변기 비율이 높은 반면 도매시장 82.5%, 휴게소 75.9%, 지하철역 76.0%, 버스터미널 70.1%등으로 와변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위생 및 편의시설

위생 및 편의시설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적으로 화장지와 비누, 타올 등 기본 비치품으로 지적되는 것이 각각 72%, 65%, 52%의 비율로 비치되어 있으며, 기본시설인 세면대,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화장실이 93.2%, 90.8%이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기본시설이므로 비치 또는 시설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의 점검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밖에 옷걸이 및 짐받이 시설이 48.4%, 방향제 설치 42.4%, 꽃과 그림 등의 비치가 43.4%로 나타나 많은 화장실이 문화가 있는 화장실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성 및 장애인시설

에티켓벨, 유아용의자 및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및 여성용비상호출기의 설치는 각각 1.9%, 5.8%, 3.0%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아직 여성,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국민복지의 수준이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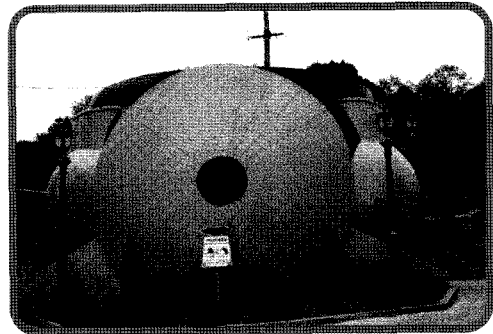
장애인화장실의 설치도 39.1%에 불과하고 그나마 진입로가 시설되어 있는 곳은 33.9%, 장애인이 홀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동개폐문 시설은 5.7%에 불과했다. 이것은 현재의 장애인 시설이 형식적인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론

흔히 우리는 화장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 관리자, 사용자가 함께 화장실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를 새삼 확인하고 특히 화장실의 주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뛰어난 자치단체의 화장실시설이 우수하고, 그에 따라 관리 및 사용자의 의식도 높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평가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여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마련 등 차후 화장실 기본법의 제정 및 정비를 통해 통일적인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정 명령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형아리 화장실'

